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정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작품 【사라지다】에 대한 조형적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박 성 배

작품 【사라지다】에 대한 조형적 연구

김 정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박 성 배

인 준 서

박성배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수세기 동안 인간과 수많은 생명체는 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은 단 2세기만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종을 멸종 시켰다. 인간이 행하는 파괴는 모든 생명체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물질적,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명분을 들어 욕망을 목적화 하였다. 자연 생태계 내 인간과 수많은 생명체들은 각각의 삶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일 뿐이다.

환경오염은 어느 한 나라의 지역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인류는 지구와 자연환경을 배제한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 자연 환경이 인류 재산이라는 의식을 가지며 환경 보존을 위한 대처와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본인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에 대해 동물에 표면을 공사장의 흙이 파헤쳐 지는 모습과 장난감 포크 레인을 둠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동물의 멸종위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2015년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 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 번째 작업 형성 배경과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멸종 위기 동물들의 실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멸종 위기 동물들의 소멸 표현 방법으로 점토와 장난감 포크 레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멸종동물 표현과 스테인리스 재료를 이용한 동물 소멸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 3
2)멸종 위기 동물의 실태 ····· 5
2. 작품표현방법 ····· 7
1)점토와 장난감 포크 레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멸종동물 표현 ····· 7
2)스테인리스 재료를 이용한 동물 소멸 표현 ····· 9
3. 작품분석 ····· 11

Ⅲ. 결 론 ····· 40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하마, FRP, 오브제, 80x30x45(cm), 2015 ····· 11

【작품 2】 물개(독도 강치), FRP, 오브제, 125x90x64(cm), 2015 ····· 14

【작품 3】 코뿔소, FRP, 오브제, 90x33x54(cm), 2015 ····· 17

【작품 4】 큰부리새, FRP, 오브제, 90x45x70(cm), 2015 ····· 20

【작품 5】 기린, FRP, 오브제, 140x50x12(cm), 2015 ····· 23

【작품 6】 코끼리, FRP, 오브제, 90x70x10(cm), 2015 ····· 26

【작품 7】 코뿔소, FRP, 오브제, 130x70x8(cm), 2015 ····· 29

【작품 8】 사슴, 스테인리스, 120x73x50(cm), 2015 ····· 32

【작품 9】 들소, 스테인리스, 113x110x73(cm), 2015 ····· 35

【작품 10】 곰, 스테인리스, 120x70x75(cm), 2015 ····· 38

Ⅰ. 서 론

인류는 수 백 만년에 걸쳐 생성 되어온 고유한 생명체를 파괴하며 소멸 하고 있다. 인류가 행하는 파괴는 모든 생물체에게 무차별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종들을 멸종 위기로 내몰고 있다. 언제부터 인간은 자연과 소통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존재가 된 것일까, 우리는 자연을 이해하는 능력 점차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말하지 못하는 존재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1] 자연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된 인류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는 관심과 존중의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회복시키고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 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중들에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서 멸종위기 동물에 포크 레인을 넣어 하나의 형태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두 개체를 조합하여 시각효과를 줌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하여 재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은 개발 현장에 흙이 파헤쳐 져 있는 모습을 동물형상의 조각 작품 피부 표면에 넣고 장난감 포크 레인이나 불도저 등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중장비 모형을 파헤쳐져 있는 부분에 배치하였다. 또 스테인리스 작업을 통해 동물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모습을 재료의 질감과 구멍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본인의 작품을 통해 멸종 위기 동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을 소재로 멸종 위기동물의 사라짐에 대한 조형적 표현 방법으로 실험 연구 및 제작 과정을 연구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분석

1) 톰브라운 지음, 김훈 옮김, 「자연에 미친 사람」, 정신 세계사, 1993, p224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와 멸종위기 동물의 실태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멸종위기 종에 속하는 코뿔소, 하마, 코끼리, 물개 등을 소재로 점토와 장난감 중장비 모형을 사용한 표현 방법, 스테인리스 재료를 통한 동물들의 소멸 표현 방법, 제작 방법에 대해 서술 하였다.

Ⅱ.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조각을 접하고 본인이 표현 하게 될 소재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레 어렸을 적 기억과 추억을 떠올려 자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그 자체로서 완벽하며 아름다우며 무한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이 운영되어 나가는 섭리 안에서 존재하며 인간 자신이 자연에서 태어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끊임없는 감동을 받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2)]

본인은 어렸을 적 시골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동물들을 키워 왔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럼으로 인해 자연스레 동물과의 친밀감이 높아졌으며 가축 동물 외에 다른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멸종 되어졌고, 멸종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시골에서도 어렸을 적 볼 수 있었던 뱀이나 개구리, 반딧불 등 여러 곤충들을 많이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연이라는 소재로 작업을 하던 중 환경오염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멸종 위기 동물의 소멸에 대해 표현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란 자연을 조절, 지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연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으로 인해 자연계에 가해진 변화가 다시 인간 사회에 되돌아와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하며 이는 환경오염을 포함한다

2)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1

고 말하고 있다.[3)]

산업 혁명에 따라 20세기 이후 인간의 수와 활동이 급증한 결과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고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종 폐기물과 폐수가 배출되고 산림, 초지, 습지 등 생태계 자원이 줄어들었으며 생태계의 균형과 질서가 깨지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증가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경작지의 확대 및 산림 파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연환경에 남겼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결과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해왔던 환경들이 인간의 무절제와 이기심들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를 유발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 되어가고 있다. 인간들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사용되어진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며 전 세계는 환경의 보존과 보호에 힘쓰고 각 분야에서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오염은 이처럼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인류는 지구와 자연환경을 배제한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아끼고 보존해야한다. 자연환경이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의식의 전환 및 재인식을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한 모두의 대처와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 기술 및 인간들의 무절제함으로 지금의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 특성이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사람들이 자연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환경오염의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회복시키고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더 심각해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위기의식에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

3) 정용, 옥치상,「 인간과 환경」, 지구 문화사, (1992), p116

2)멸종위기 동물의 실태

자연에 모든 생물은 수많은 진화의 단계를 거칠지라도 생명의 기본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 동물은 자연의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삶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동물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결코 자연을 초월할 수는 없다. 먹이사슬이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에서는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젠가는 죽고 그럼 으로서 다른 생물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끊이지 않는 생존의 순환으로서 개체는 죽으나 생명은 계속되는 것이다.

야생 동물들은 먹이사슬 안에서 오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만이 이기심과 욕심을 때문에 동물들을 살생한다. 인간은 즉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쾌락을 맛보기 위해 무고한 야생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또한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을 필요 이상으로 무자비하게 남획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수백만 마리에 달했던 들소 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유산인 야생 동물들의 멸종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모든 야생동물은 전설 속에서나 그 이름을 남기고 멸종되어 버리고 말 것이며, 동물원에서나 그 일부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 결코 다시는 되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물을 멸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면서 한편으로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척추를 가진 동물들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던 시기에 지능이 보다 발달하였던 인간은 360여종에 달하는 비슷한 종류의 표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멸종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생태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 사실은 인간들

이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1천여 종 이상에 달하는 척추동물 또는 유사한 동물들을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인간 자신이 이룩한 문명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상품화되어 팔려 가고 팔려 오는 일들이 근대에 와서 급격히 증가되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본 논문의 표현 작품들은 멸종위기 동물과 장난감 포크 레인 이라는 오브제를 선택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대상 즉 인간에 의해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의 모습을 장난감 포크 레인 과의 조합을 통하여 표현 하였다. 이는 동물의 형태 안에 서로 다른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두 개체를 대비시켜 시각적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이다. 또한 하나의 형상 안에서 대비되는 개체들로 인해서 새로운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주는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2. 작품표현방법

본인은 야생동물이라는 소재를 두 가지 형식을 들어 표현했다. 작품의 형식은 재질을 기준으로 크게 철조와 소조로 나뉜다. 상이한 재질과 표현방식으로 인해 언뜻 결을 달리하는 듯 보이는 두 형식은 작품 표층의 공구(孔口)라는 연결점을 공유함으로 큰 맥락의 줄기를 잇고 있다. 물론 공유한다고 해서 표현방식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소조작품은 조금 더 사실적인 방식과 오브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구(開口), 즉 상처의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철조작품에서 표현된 상피의 구멍은 어떤 흔적에 가깝다. 소조 작품에 비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스스로의 조형 언어를 통해 남겨진 상흔에 집중하고 있다. 둘 모두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멸의 이유와 소멸의 양태를 나열하고 있다.

1)점토와 장난감 포크 레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멸종동물 표현

점토라는 재료는 조각가가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중의 하나이다. 점토는 유연한 특징으로써 깎고 붙이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섬세하고 디테일 한 부분까지 묘사가 가능한 재료이다. 또한 점토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딱딱한 뿔을 질감으로 표현이 가능한 재료이다. 본인은 최대한 사실적인 동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개발로 인해 흙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토가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해서 점토라는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본인은 【작품 1】 - 【작품 7】 까지 점토로 성형하여 작품을 표현 하고 석고로 틀을 떠내고 FRP 로 환원하여 작품을 표현 하였다. 점토로 동물의 표정과 형태를 표현하고 공사장의 개발현장에 흙이 파헤쳐진 모습을 동물의 몸 곳곳에

점토로 표현 하였다. 그 후 FRP로 환원 하고 수정작업을 거친 후 장난감 포크 레인이 동물의 파헤쳐져 있는 몸에 배치되게 된다.

우리는 명사를 통해 세계를 본다. 절대자로서 사물에 이름을 부여했지만 그 이름이 구축한 세계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술작품 또한 그 주제와 배치된 장치들의 이름, 즉 명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다면 한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두 명사의 조합일 때 어떤 명사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은 그 방향을 달리하게 하게 된다. 본인이 배치한 '장난감 포크 레인'이 그렇다.

장난감 포크 레인은 장난감과 포크 레인, 두 단어의 조합이다. 여기서 포크 레인에 중점을 둔다면 작품은 자연스레 생태학적 논의로 연결 된다. 포크 레인과 불도저의 존재적 소명은 파괴에 그 본질이 있다. '불도저 = 파괴' 라는 조합은 아이가 언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되고 그것은 그대로 굳어져 관념의 세계로 편입된다. 이 경우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얻게 되는 즉각적인 시각정보들은 대부분 이 파괴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여기서 표면을 온통 헤집고 긁어내는 오브제는 무너진 생태계 질서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론을 제기하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두 단어의 조합에서 '장난감'에 무게가 실린다면 작품의 해석은 그 층위를 달리하게 된다. 아이는 축소된 복제품을 통해 현 세계를 이해한다. 장난감은 미성숙과 성숙, 자유와 속박, 상상과 주입, 무지와 지혜 사이를 잇는 다리다. 이것은 일종의 교육의 상징으로서 아이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현실을 바탕 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이자 어른 세계로의 인도자인 것이다.

본인의 장난감 포크 레인과 불도저 또한 현실 세계의 복제품이다. 다만 포크 레인과 불도저가 밀어내야 할 것은 한 야생 개체의 표면이 아닌 대지의 흙과 돌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 기능성을 메타포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난감 포크 레인과 불도저가 파괴의 수행자로서 밀어내고 있는 세계, 야생동물로 표현된 이 세계의 지시대상이 반드시 자연생태계에

머물지만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쩌면 사바나 초원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지 못한 우리에게 코뿔소와 사자와 기린이 거니는 세계는 상상의 낙원이자 이데아적 세계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꿈과 이상향의 세계, 이 세계를 장난감 불도저가 생채기를 내며 무너뜨리고 있다. 현실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이 상상과 꿈의 세계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관성이 전무한 오브제의 병치를 통해 장난감 포크 레인과 불도저는 자연 파괴에 목적을 두고 배치된 오브제다. 이들이 배치됨으로 본인이 표현한 야생동물은 분명 소멸이라는 존재적 위기 앞에 놓이게 된다.

2)스테인리스 재료를 이용한 동물 소멸 표현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가열해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일상적으로 '스텐'이라 줄여 부른다. 스테인리스의 특징은 내식성이 좋아 녹이 잘 생기지 않고 부식이 잘 되지 않으며 내구성 및 내열성이 좋아 많은 조각가 들이 다루는 재료이기도 한다.[4)]

본인의 스테인리스 작품에서 표현된 구멍은 동물의 형상에서 사라짐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작업하였다. 예로부터 서구 사회는 '비어있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품고 있었고,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포하게 되는 역설을 부정 하였다. '무의 존재'라는 패러독스는 서구의 합리주의와는 상충되지 않았던 것이다. 17세기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 1608-1647)에 이르러서야 진공의 개념을 인정 하게 된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5)] 스테인리스 작품은 소조작품에 비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구멍과 스테인리스 표면을 통해 남겨진 상흔에 집중하고 있다.

---

4)[네이버 지식백과] 스테인리스 [Stainless steel] (쇼핑용어사전)
5)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67p

【작품8】과 【작품9】는 사슴과 들소가 박제[6]된 모양으로 머리만 벽에 걸려 있는 형식으로 제작 되었다. 이는 인간이 밀렵활동을 통해 동물들의 머리를 박제해 벽에 걸어 놓으면서 인간의 욕심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스테인리스 작품은 면이 아닌 선의 재료로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선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금속성의 면은 각각의 선들이 서로 인과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형상을 형성 하게 된다. 선과 선들이 모이면서 면이 구성되게 되는데 이는 【작품5】에서 보여주는 포크 레인의 궤도 자국으로 동물의 몸에 생긴 상처를 스테인리스 선의 질감을 통해 표현 하였다.

6)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기고 썩지 아니하도록 한 뒤에 솜이나 대팻밥 따위를 넣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3. 작품분석

【작품 1】 하마

【작품 1】 하마

연도 : 2015

크기 : 80x30x45(cm)

재료 : FRP, 오브제

제작방법

1. 반생이를 이용하여 하마의 형태로 아크 용접한다.
2. 아크 용접된 형태에 알루미늄 망을 씌운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4.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5.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6.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7.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하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중의 하나로써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의 하천, 호수, 늪 등에 서식 하였는데 현재는 밀렵 등으로 인해 국립공원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하마는 멸종 위기 단계로서 취약의 단계에 있는 동물이다. 본인은 하마의 피부 곳곳을 파헤치기도 하고 바퀴 자국을 내서 하마의 온전한 형태가 아닌 파헤쳐진 형태를 표현 하였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고 사라져 가는 하마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작품 2】 물개 (독도 강치)

【작품 2】 물개 (독도 강치)

연도 : 2015년

크기 : 125x90x64(cm)

재료 : FRP. 오브제

제작방법

1. 반생이를 이용하여 물개의 형태로 아크 용접한다.
2. 아크 용접된 형태에 알루미늄 망을 씌운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4.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5.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6.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7.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독도 강치는 외모는 바다사자와 비슷하게 생겼다. 독도 강치의 개체 수는 한 때 5만 마리 이상으로 독도를 갈색 빛으로 덮히게 하였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온 후로부터 독도 강치는 점점 독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매년 1만 마리 이상의 강치를 잡았다고 한다. 또 강치를 군인들의 연습용 표적으로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살해 1975년 이후로 독도 강치는 완전히 멸종 되었다. 본인은 독도 강치 등과 몸 곳곳을 파헤쳐 지게 표현하고 등에 불도저 오브제를 두면서 강치의 슬픈 모습을 표현 하였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이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작품 3】 코뿔소

【작품 3】 코뿔소

연도 : 2015년

크기 : 90x33x54(cm)

재료 : FRP, 오브제

제작방법

1. 반생이를 이용하여 코뿔소의 형태로 아크 용접한다.
2. 아크 용접된 형태에 알루미늄 망을 씌운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4.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5.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6.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7.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코뿔소는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1960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검은 코뿔소는 대략 7만여 마리였으나 현재는 4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았다. 놀랍게도 1970년과 1992년 사이에 검은 코뿔소의 96퍼센트가 밀렵으로 죽었으며 극소수만 겨우 생존한 지금도 무자비한 밀렵이 계속되고 있다.

코뿔소의 몸 곳곳에 우리가 개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장비로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파헤쳐져 있는 곳에 흙을 옮길 때 사용되는 중장비를 넣어 표현 하였다. 지금은 국립공원이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백과사전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작품 4】 큰 부리 새

【작품 4】 큰 부리 새

연도 : 2015년

크기 : 90x45x70(cm)

재료 : FRP, 오브제

제작방법

1. 반생이를 이용하여 큰 부리 새의 형태로 아크 용접한다.
2. 아크 용접된 형태에 알루미늄 망을 씌운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4.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5.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6.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7.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큰 부리 새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1860년대부터 커피와 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서면서 숲은 조각나고 줄어들었다. 또한 사람들이 큰새를 중심으로 사냥을 하면서 왕 부리 새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열매를 먹는 대형 조류가 사실상 멸종 상태에 빠졌다. 큰 부리 새는 멸종 관심 보호종에 속한다. 나무에 앉아있는 큰 부리 새에 자그맣한 포크 레인이 큰 부리 새의 꼬리 쪽에서 올라가 큰 부리 새의 머리 쪽과 등 쪽을 파헤치고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고 점점 멸종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표현 하였다.

【작품 5】 기린

【작품 5】 기린

연도 : 2015년

크기 : 140x50x12(cm)

재료 : FRP, 오브제

제작방법

1. 반듯한 판에 기린을 스케치하고 스케치한 형태에 맞춰 나사못을 박아준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3.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4.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5.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6.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기린을 부조로 표현하여 중장비 중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포크 레인이 기린의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포크 레인의 궤도로 상처를 내며 돌아다니고 곳곳을 파헤친다. 이는 마치 인간이 동물들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인두자국 과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6】 코끼리

【작품 6】 코끼리

연도 : 2015년

크기 : 90x70x10(cm)

재료 : FRP

제작방법

1. 반듯한 판에 코끼리를 스케치하고 스케치한 형태에 맞춰 나사못을 박아준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3.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4.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5.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6.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코끼리는 매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동물중의 하나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커지고 있는 상아 시장 때문에 상아를 사고팔려고 밀렵이 증가하고 있다. 코끼리를 위협하는 것은 밀렵만이 아니다. 코끼리 등에 올라타는 사파리여행, 동물원 서커스에 팔리기 위해 포획되기도 한다. 본인은 코끼리의 몸의 전반적인 부분에 도로를 만들어서 코끼리가 마치 도로라는 그물에 걸려 걸러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 하였다.

【작품 7】 코뿔소

【작품 7】 코뿔소

연도 : 2015년

크기 : 130x70x8(cm)

재료 : FRP, 오브제

제작방법

1. 반듯한 판에 코뿔소 스케치하고 스케치한 형태에 맞춰 나사못을 박아준다. (흙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3.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4.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포리 빠데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5. 수정작업 마무리 후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6.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다.

작품설명

코뿔소는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1960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검은 코뿔소는 대략 7만여 마리 였으나 현재는 4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았다. 놀랍게도 1970년과 1992년 사이에 검은 코뿔소의 96퍼센트가 밀렵으로 죽었으며 극소수만 겨우 생존한 지금도 무자비한 밀렵이 계속되고 있다.

코뿔소를 부조로 표현하여 몸 곳곳에 우리가 개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장비로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파헤쳐져 있고 코뿔소의 몸 곳곳에 상처를 내고 있다. 지금은 국립공원이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백과사전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작품 8】 사슴

【작품 8】 사슴

연도 : 2015년
크기 : 120x73x50(cm)
재료 : 스테인리스

제작방법

1. 스치로폼 으로 사슴의 모습을 조각한다.
2. 조각된 사슴의 형태에 석고를 바른다.
(아르곤 용접을 하게 되면 스치로폼이 열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석고가 발라진 형태위에 스테인리스 연선을 이용하여 사슴의 형태에 맞춰 아르곤 용접한다.
4. 용접이 끝나면 그라인더로 사슴의 형태를 잘라서 안에 있는 스치로폼을 빼내고 다시 형태에 맞춰 아르곤 용접 해준다.
5. 아르곤 용접으로 인해 그을린 부분을 브러쉬를 이용해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광을 내준다.

작품설명

사슴의 녹용은 사람들의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비싼 값에 많이 팔려져 가고 있다. 또한 골프장등을 만들면서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슴을 스테인리스 선을 이용하여 선과 선이 모여 사슴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만들어진 사슴의 형태에 구멍을 내어 사슴이 소멸해 가는 모습을 표현 하였다. 사슴의 박제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밀렵과 욕심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사슴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작품 9】 들소

【작품 9】 들소

연도 : 2015년
크기 : 113x110x73(cm)
재료 : 스테인리스

제작방법

1. 스치로폼 으로 들소의 모습을 조각한다.
2. 조각된 들소의 형태에 석고를 바른다.
(아르곤 용접을 하게 되면 스치로폼이 열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석고가 발라진 형태위에 스테인리스 연선을 이용하여 들소의 형태에 맞춰 아르곤 용접한다.
4. 용접이 끝나면 그라인더로 들소의 형태를 잘라서 안에 있는 스치로폼을 빼내고 다시 형태에 맞춰 아르곤 용접 해준다.
5. 아르곤 용접으로 인해 그을린 부분을 브러쉬를 이용해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광을 내준다.

작품설명

19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초원에는 약 4,000만 마리의 들소(바이슨)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1900년에는 불과 500 마리 밖에 남지 않았다. 살해된 들

소는 가죽만 벗겨진 채 그대로 들판에 버려져 썩어갔다. 사냥꾼들은 들소의 가죽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결과이다.

이러한 들소를 스테인리스 선을 이용하여 선과 선이 모여 동물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만들어진 동물의 형태에 구멍을 내어 들소가 소멸해 가는 모습을 표현 하였다. 들소의 박제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밀렵과 욕심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들소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작품 10】 곰

【작품 10】 곰

연도 : 2015년
크기 : 1200x70x75(cm)
재료 : 스테인리스

제작방법

1. 스치로폼 으로 곰의 모습을 조각한다.
2. 조각된 곰의 형태에 석고를 바른다.
(아르곤 용접을 하게 되면 스치로폼이 열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석고가 발라진 형태위에 스테인리스 연선을 이용하여 곰의 형태에 맞춰 아르곤 용접한다.
4. 아르곤 용접이 끝나면 그라인더로 곰의 형태를 잘라서 안에 있는 스치로폼을 빼내고 다시 형태에 맞춰 용접 해준다.
5. 용접으로 인해 그을린 부분을 브러쉬를 이용해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광을 내준다.

작품설명

스테인리스 선을 이용하여 곰의 형태를 만들어 간 뒤 만들어진 곰의 형태에 구멍을 내어 동물이 소멸해 가는 모습을 표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밀렵과 욕심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곰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Ⅲ. 결 론

인간은 급격한 산업발전 이후 지금껏 환경을 파괴하며 인간의 욕심에 의해 많은 생물들을 학살하고 이용하며 또한 환경을 오염시켜 수많은 생물 종들을 위험해 처하게 하고 있다. 육지, 바다 생물 가릴 것 없이 현재 이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놓인 종들이 많다. 물론 원래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어떠한 종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그 시간이 빨라지고, 나타나는 종보다, 사라지는 종이 더 많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생활할 장소를 잃게 됨으로써 멸종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생활 여건에 적응함으로써 그 개체의 무리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생활범위를 확대시켜 갈 수 있었다. 그밖에 멸종된 종들은 변해진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응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본인은 멸종위기 동물인 코뿔소, 하마, 들소, 코끼리 등을 선정하여 동물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 하였다. 첫 번째로 점토와 장난감 포크 레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재료를 이용해 동물 소멸을 표현 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에 욕심에 의해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소재로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의 실태를 재인식하고, 사적 성찰 도구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인간 또한 자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요소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인은 계속해서 환경오염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연구 할 것이며 또한 인간의 욕심에 의해 사육되어 지고 있는 가축 동물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앞서 본인이 사용했던 점토 제작 방법으로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공사장 현장들을 동물들과 재조합하여 표현하고 스테인리스의 재료로 동물들의 사라짐에 대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며 작품의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톰브라운 지음, 김훈 옮김, 『자연에 미친 사람』, 정신 세계사, 1993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정용, 옥치상, 『인간과 환경 』, 지구문화사, 1992

·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ABSTRACT

A Formative Study on the Work 【DISAPPEARED】

Park, Sung-bae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centuries, human and a great number of creatures have lived by sharing ecosystem, so called earth. However, a new wave, the Industrial Revolution, destroyed ecosystem and exterminated lots of species. Destructions having been made by human were enacted to all creatures undiscriminatingly, and desires were rationalized by pretexts of pursuing physical, economic profits. Human and many creatures belong to just equal existence that shares each living and liv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is being recognized as an issue all over the world which threats humankind survival instead of regional matter of any one country. Mankind save and preserve earth and natural environment because living by excluding them cannot be thought. The necessity of coping with environmental maintenance and doing efforts while having awareness such like natural environment is mankind assets is being suggested.

Researcher stressed on having a new understanding and introspecting problems regarding endangered status of animals owing to human's selfishness by showing that soils on animal surfaces of the construction site was digged up and laying a fork lane toy in relation with destructions of animal habitats derived from indiscreet development as well as reviewing current actual condition on endangered animals.

This study is composed of followings based on the work having been produced in 2015.

In Introduction part of Chapter 1, research directions of researcher own work and its purpose.

In Main Subject of Chapter 2, forming background of the first work,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of development, and endangered animals status were treated. Second, description on endangered animals expression